

부고-동봉(東峯) 권홍섭(權洪燮) 고문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봉 권홍섭(왼쪽 첫 번째) 고문께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시조 태사공의 한시와 화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봉(東峯) 권홍섭(權洪燮) 고문께서 6월 21일 별세하였다. 향년 94세. 장지는 예전 선영이다. 동봉 선생은 1932년 예전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유교학술원 한국한시협회 한시 강사와 동국대학교 정학원(正學院) 한시반 초빙강사를 수년간 역임했다. 저서로 <한시작법과 명시감상>이 있으며, 2008년 10월 종로구 삼정공원에 선생의 한시(漢詩) 영무정사계(詠舞亭四季)가 새겨진 시비(詩碑)가 건립되어 있다. 특히 동봉 선생은 시조 태사공의 한시와 화상에 대해 정보에 특별기고를 하기도 하고, 동년 10월 14일(금) 대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상임위원회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회의에도 몸소 나오셔서 태사공(太師公)의 화상(畫像)이 그려진 극초서체 한시(漢詩) 유고(遺稿)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아래는 동봉 선생이 2022년 3월 1일자와 11월 1일자 정보에 시조 태사공의 극초서체 한시를 직접 풀이하고 설명한 내용이다.

獨隱水聲裡(독은수성리) 홀로 물소리 속에 은거하고 있으니
昌亭無熱時(창정무열시) 창정에서는 더운 때를 모를러라
客來因月宿(객래인월숙) 객객이 찾아오면 달 밝은 정자에서 쉬며
床勢向低持(상세향저지) 침상은 높은 곳에 마련하였지
*오언절시(五言絶詩)로서 평성지운(平聲支韻)이다.
*극초(極草)로 활달하게 쓰였는데 만년(晩年)의 한가(閑暇)하심이 엿보인다.

流洲薄無出(영주박무출) 영주에 흥년이 들어 소출이 없으므로
整雨春馬匹(정랑춘마촉) 수레를 정비하여 봄 말을 재촉했네
田事情憂伯(전사청누백) 농사일은 누백에게 모두 맡기고
罷官貧還復(파관빈환복) 관직에서 물러나니 청빈으로 돌아왔네
*오언절시(五言絶詩)로서 축성옥운(仄聲沃韻)으로 옥운(屋韻)과 통운(通韻)하였다.

나래에 흥년(凶年)이 들어 소출(所出)이 없으므로 봄에 말을 재촉하여 어려움을 돌보시고 휴퇴(休退)하시고는 청한(淸寒)함이 엿보인다. 이 시는 율시(律詩)가 아니다. 절시(絶詩) 두 수(首)를 연달아 쓰시고 끝에 고창(古昌) 권행(權幸) 서(署)라고 기록하였는데 서(署)자는 서(書)자와 같이 본인을 표시한 서명(署名)이다.

첫 번째 시(詩)는 한가한 가운데 자유분방하시고 두 번째 시(詩)는 재직 시에 춘궁기를 맞아 기민(畿民)을 위해 진휼(賑恤)하신 광경과 청빈(淸貧)하게 지내심을 잘 표현하였다.

이 작품이 친필(親筆)이라고 확신(確信)함은 만일 대필이라고 가정한다면

강릉 대사성 공충회 정기총회 겸 화수회 성황리 개최

단오인 지난 5월31일 북아공과 대사성 공충회는 전임 권오형(權五亨)회장과 신임 권현주(權賢柱)회장을 비롯한 족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기 1096년 제44차 정기총회 겸 화수회를 강릉시 은행나 무길 9(옥천동)에 있는 유서 깊은 보진당(保眞堂)에서 성황리 개최하였다.

권혁렬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 능동묘역을 향한 망배를 시작으로 족친간 상호인사, 권오형회장은 강원도의회 권혁렬(權赫烈) 전 의장과 내빈 및 족친소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權性東) 국회의원의 화수회와 신임 권현주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축전 소개로 이어졌고, 북아공과 대사성 공충회 제44차 정기총회는 권오형회장 주관으로 권혁렬총무의 중무활동보고, 권승전강사의 감사보고, 권혁동재무의 2024년도 결산보고 및 예산안 심의결과보고, 2025년 주요사업계획보고, 신임임원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오형 전임회장은 이임사에서 재임기간 축전 여러분의 협조로 숙원사업인 16세 직장공(直長) 휘(諱) 의(義) 단소를 가일 참의공충증과 혐의로 건립되어 자손된 도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해는 강릉시와 문화재청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보진당 보수공사로 내부 전기개설과 외부에는 야간에 조명등을 밝히게 되었으며 마당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화재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게 되었다고 임기내 사업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어 권현주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어느새 신록은 푸르름이 짙어지고 보리이삭도 영글어가는 절기상 망종을 앞두고 오늘 단오를 맞아 대사성공충회에서는 매



년 정기총회를 겸하여 화수회를 개최 한다며 강릉단오는 천년을 이어오는 신과 인간의 만남은 주제로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 속에 제일 큰 축제라고 소개하였다.

오늘 행사하는 이 자리는 우리 임항조현령공(諱 軸)의 아드님이신 20세 보진당공(諱 士均)께서 1520년경에 지으신 별당〈保眞堂〉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참됨을 보양하고, 진리를 탐구’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곳이라며 건물의 중심축인 대들보 3본은 1867년 대화재로 소실된 후 12년만인 1878년 중건 당시 모안이공 포남동산 45번지 중종 위토에서 벌채하여 산아래 경포호수에 떨어뜨려 강문과 안목바다를 거쳐 남대천을 거슬러 끌어올려 도끼와 자귀질로 깎고 다듬어진 목재라며 긴 세월 속에 호랑이 누이가 선명하게 나타난 형태로 웅장하고 안정감 있게 건물을 떠받치고 있다면서 오늘 개최하는

화수회(花樹會)의 본 뜻은 같은 성을 가진 족친들이 친목 도모를 위하여 만나는 모임으로 나무뿌리인 근(根)은 조상님으로 여기고, 가지인 지(枝)는 현재 우리들로 표현되며, 잎(葉)과 꽃(花), 열매(實)는 후손인 자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대 조상님으로부터 후손까지 번성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며 그런 의미로 우리 총회는 옛 이름 그대로 화수회로 한다며 제가 금년부터 과분한 회장직을 맡고 보니 18년전 공직에서 퇴직하고 처음 중회 일을 볼 때 37세순으로 세수도 낮았고 젊은 분들도 없어 그저 대부님, 아저씨(아제) 하며 지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계절감도 느끼게 된다면서 앞으로 족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회 발전과 단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첫째>송조이님의 바탕으로 선조묘소 정화와 봄, 가을 시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많은 족친들께서 참여하도록 하여 부

리를 찾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둘째로>만나면 더 가까워진다는 인간 사회로 족친간의 화합과 친목을 위하여 화수회를 활성화 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고, <셋째로>이곳 보진당은 강릉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어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데 우리 선조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의 자랑과 자부심을 갖고 강릉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단오 행사 기간 만이라도 시민들께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현주회장의 취임사 이어 안동 북아공과총회 권영상회장은 강릉 대사성공충회에서 화수회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족친과 새로운 만남의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마니회원이 준비한 단오 특별 음식으로 축절편과 옛부터 즐겨 먹던 머위대볶음, 개두릅무침, 감자자반, 가지미취무침 반찬에 북아공과 회장이 협찬하신 인절미경단과 안동회곽약주를 곁들인 진수성찬에 관태원 고문이 “단오 성황신께 농촌에는 풍년을, 어촌에는 풍어를 기원한다며 우리 모두 무탈하게 한해를 보내자”고 건배를 제의하였다. 오찬을 끝난 다음 보진당을 배경으로 오늘 참석한 족친 모두 한 장면, 이어서 마니회원 한 장면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이어서 대사성공충회 고문 임원들은 안동 북아공과총회 임원진을 안내하여 경포광경의 하나인 환선정(喚仙亭)을 둘러보고자 포남동 모안이굴으로 이동해 23세 죽봉공(諱 守經) 선영에 참배한 후 22세 학동공(諱 協)이 1582년 창건하였다가 19세기말쯤 소실된 것을 2016년에 복원 중건한 환선정을 둘러보며 옛부터 전해오던 환선정의 피리소리(喚仙吹笛), 달맞이(喚仙廬月)가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려 진경이라 감탄하였다.

대사성공충회 총무 권혁렬

영남 유림의 맥을 이어온 부자(父子) 유학자

현암 권재성·설암 권옥현 선생 추모강연회 열려



지난 6월 7일 오전, 부산대학교 인문관에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과 유학의 맥을 잇는 모임계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근세 유학자 현암 권재성(1890~1955) 선생과 선생의 자제 설암 권옥현(1912~1999) 선생을 기리는 추모 학술 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남 유학의 전통을 계승한 현암과 설암 부자(父子)의 학문적 업적을 조명하는 뜻 깊은 자리로, 이처럼 부자가 함께 유림에서 존경받는 학자로서 추모강연회를 열어 기리는 것은 매우 드물다. 이날 행사에는 설암의 장손 권석근 씨, 김해향교 조희옥·김경규 씨, 김해 문화원장 김우락 씨를 비롯해 동래향교, 고성향교 등의 유림과 문인, 안동권씨 종친, 부산문화포럼, 부산대 한문학과와 윤리교육과 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현암의 손자 해국, 해조를 비롯한 여러 후손도 함께 자리하였다.

이날 제자인 정경주 경성대 명예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본성을 연구하는 현암과 설암 선생의 학문은 급변하는 IT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닌다.”며 “모임계를 통하여 현암, 설암 두 분의 높은 학문과 이상을 되새겨 볼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김홍수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은 “저는 1988년부터 2년간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다른 문과생에 비해 공부가 부족했는데도 선생님은 저의 부족함보다 삶의 실천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두 분을 기리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이 학술대회를 부산대에서 계속 개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설암 선생의 장손 권석근 씨는 가족을 대표하여 “전국에서 참여해 주신 유림과 문인, 학계의 모든 분들께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선비의 일상은 학문을 닦고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데 그 뜻을 따르는 이 모임이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하였다.

이어진 강연회는 백승옥 부경역사연구소 소장이 ‘설암 선생님을 추모하며, 『중용』 구경장을 읽다』로, 한국국학진흥원 이새록 박사가 ‘현암 권재성의 학문과 교육’로, 단국대학교 채지수 박사가 ‘현암 권재성의 시세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세 학자의 발표는 현암과 설암의 학문적 깊이와 그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모임을 주최한 모임계는 근세 유학자 설암 권옥현 선생의 제자를 중심으로 선생의 유학 정신을 계승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며, 현암과 설암 두 분은 율곡 이이와 우암 송시열의 기호학맥을 계승한 영남의 대표적인 유학자이다. 특히 설암 권옥현 선생은 영남 유학의 거목인 추연 권응현 선생의 수제자로서, 부산에서 후학 양성과 유학 전승에 기여한 바가 크며, 설암문집 18권 6책을 남기셨다.

설암의 문문 후학으로는 원료학자 허효구 선생, 정창석 선생, 국학진흥원 이갑규 교수, 영남대 최종호 교수 등이 있고, 제자로는 경성대 정경주 명예교수, 전 동의의료원 김영균 원장, 전 양산대 임원대 교수 부산대 이성태 교수, 부산대 김홍수 교수, 동아대 유영옥 교수, 학원서당 정영만 박사, 박도준(전 강서교) 서예가, 김성균·황병호·허우석(경남외교) 등 저명인사가 많다. 이 외에도 한문학, 윤리교육, 국문학, 역사학, 한의학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학자와 교사가 설암 문하의 후학들이다.

이번 추모강연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20세기 근세 유학 정신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을 오늘의 삶 속에 되살리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선현들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모임계를 중심으로 정통 유학의 맥(脈)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 사무국장 권재영

2025 태사문학 4집 『구슬비』 출간 기념회 및 총회 성료



안동권씨 문인들이 모인 태사문학회(회장 권필원)에서는 지난 5월 26일 12시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안동권씨대중회 3층 회의실에서 권순자 사무국장의 사회로 태사문학회 4집 『구슬비』 출간 기념과 총회를 개최하였다.

태사문학회는 지난 2022년 4월 우리나라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같은 성씨의 문학회로 구성되어, 안동권씨 문중의 자랑과 긍지를 안고 태동한 문인 단체이다. 회원 50여 명으로 4회째 문학지를 발행하여 흠여져 살고 있는 족친끼리의 정신문화를 통한 결속과 우정을 다지고 있다.

100만 안동권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인 『안동권씨 성화보』(1476년, 성종 7)를 간행하였기도 하지만, 안동권씨 현대문학인들이 모여 해마다 출간하고 있는 태사문학지 또한 문학사적 큰 의미와 함께 후대에 길이 빛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권필원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미국 애크

란타에서 잠시 귀국한 권명오 회원도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씨는 고국 방문과 회원들의 만남에 대한 감회를 밝혔으며, 『코리안 아메리칸 아리랑』이라는 에세이집을 참석자들에게 증정하였다.

이날 권영창 대중회장이 참석식 못한 사유로 인하여 권기모 총무국장이 축사를 대신하였고, 이어 참석한 열 분의 인사가 있었다. 권혁모 고문의 경과보고와 권순자 사무국장의 결산보고가 뒤따랐다. 권종숙 대중회 부회장은 준비한 케이크를 자르며 자신의 특기인 축가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후 대중회에서 마련한 오찬을 마친 후 권행완 편집국장의 인사로 2부 총회가 시작되었다. 임원 개선은 현 임원의 1년 유임으로 결정하였고, 회원 확보 노력과 종보를 통한 문학작품 발표 및 종보 구독 운동도 앞장서 노력하자는 다짐을 하였다.

권순자 태사문학회 편집국장